

“힘든 시기에 음악이 위로가 될 수도”

김윤아, 6년만에 네번째 솔로 프로젝트 앨범 '타인의 고통' 발표

“이런 시기에 새 노래를 발표하고 홍보하는 것이 죄스러운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때에 음악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싱어송라이터 김윤아는 지난 8일 마포구 메세나폴리스에서 열린 네번째 솔로 프로젝트 앨범 '타인의 고통' 쇼케이스에서 “이번 타이틀곡인 ‘꿈이 그런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아가 솔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건 2010년 세번째 솔로 앨범 '315361' 이후 6년 만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함께 생각해야 할 화두를 제목으로 내세웠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 비로소 개인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현재와 자연스레 겹쳐진다. 평소 팬이나 일반 사람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잘 들여다 본다는 그녀는 최근 모두가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들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작자 그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죠. 이번 앨범에 그 타인의 고통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올해 혐오 등으로 유독 힘들었던 여성에 대한 노래 '은지도 있다.

실존인물 '은지'에게서 영감을 얻은 곡이다.

“제 주변 분한테 항상 행복하게 웃는 분이예요. 은지는 밝고 아름답고 생기 발랄했던 어떤 여자들에 대한 이죠. 여자니까 자신을 다 잡아 넣고 한참 뒤 내게 무엇이 남았지”라고 허탈해하는...”

모든 장르를 아우른 앨범이기도 하다. 클래식 블루스, 팝, 포크, 록 전자 음악의 자장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치밀한 팝 시운드는 몽환적이다.

김윤아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앨범 전체의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스를 도맡았다.

이번에도 역시 음정 교정용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날 것으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힘겨운 시간을 통과한 끝에 내놓은 앨범이다.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만료 후 일종의 빈틈 증후군을 거쳤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해오다,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0개월 정도 쉬다보니 다시 곡을 쓰고 싶어졌다”고 이번 앨범을 낸 이유를 전했다.

작년 겨울은 또 다른 면에서 김윤아에게 후속했다.

뮤지컬 '베베카'에서 덴버스 부인을 맡아 뮤지컬에 데뷔했으나 연습을 거듭하다가 후두염 진단을 받았다.

그해 12월4일 부산 첫 공연을 소화했으나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공연은 전부 취소하고 이 작품에서 자퇴했다.

“호되게 후두염을 앓고 발성에 문제가 생겼죠. 다행히 성대이상은 아니에요. 다만 목소리에서 쇠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죠.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기로에서 있던 때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윤아는 그러나 담담한 목소리로 오히려 타인을 다독인다.

9일부터 11일까지 신한카드 판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콘서트를 열고 직접 팬들에게 위로를 건넬 예정이다.

2017년에는 자신이 보컬로 있는 밴드 '자우림' 20주년 활동에도 주력한다.

그 가운데도 타인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행복에 방점을 찍었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죠. 누군가 앞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만큼 대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저도 그 안에서 덩달아 행복했으면 해요.”



김윤아 정규 4집 앨범 '타인의 고통' 쇼케이스에서 김윤아가 열창하고 있다.

/뉴스이

전북도무주군 통합 스키협회 출범

전라북도 스키협회는 지난 8일 발대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시작했다.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한용성 초대 통합 전라북도스키협회장을 비롯해 최태호 고문과 이철원 수석 부회장 등 총 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앞으로 4년간 전북스키협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용성 회장은 “스키 꿈나무 육성 등 생활체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스키자본 확대와 함께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협회장배 스키대회 개최 시 개최식을 과감하게 생각하고 개최식에 들어가 비용을 사회 어려운 계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 전북스키협회는 무주종합복지관 장애인들에게 스키장갑 100개를 후원하는 한편 앞으로 상호 협력하는 협약식도 가졌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스키협회는 전북도와 무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년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의 목표를 전라북도 동계스포츠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키협회는 무주군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를 비롯한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을 영입한 상태다.

한용성 회장은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을 비롯한 감독, 코치와 함께 앞으로 4년간 스키협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전북도의 동계스포츠 위상을 위해 모든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 세계 보디빌더들, 내년 부안에 모인다’

‘WBC CHAMPIONSHIPS IN JEOLLA’ 부안 개최 WBC 전라지부-레인보우포켓 MOU 체결

2023년 세계잡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염원하며 전 세계 보디빌더들이 내년 부안에 모인다.

부안군은 2023년 세계잡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지원하며 전 세계 보디빌더들의 축제인 2017 WBC(WORLD BODY CONTEST) CHAMPIONSHIPS IN JEOLLA' 대회를 내년 3월 19일 출품간 깃발생태공원에서 개최기로 하고 WBC 전라지부와 (주)레인보우포켓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WBC 전라지부가 주최하고 (주)레인보우포켓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보디빌더 선수 및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WBC는 지난 2009년 9월 28일 제회 피트니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한국 최초로 유치해 파규어·모델·마슬 3개 종목으로 대회를 치렀으며 현재는 매년 상반기대회, 썸머대회 하반기대회가 개최되고 피지크·모델·미즈 비키니·파규어·마슬·피트니스 등 7개 종목으로 나눠 대회를 열고 있다.

WBC는 지난 8년 동안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했으며 매 대회마다



20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해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했다.

‘2017 WBC CHAMPIONSHIPS IN JEOLLA’ 대회장인 김정필 WBC 전라지부장은 “WBC는 순수 한국 토종브랜드

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편의 향상과 행사의 안전을 물론 요즘 트렌드인 힐링에 초점을 맞춰 수준 높은 글로벌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2017 WBC CHAMPIONSHIPS IN JEOLLA'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품간 깃발생태공원의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대회 홍보 및 편의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 오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길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BC 대회는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오픈월드 챔피언십 대회로서 내년 하반기 유일한 한국 토종브랜드로써 미국에서 WBC 월드 챔피언십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지리산 청년’ 김영근, ‘슈퍼스타K’ 우승

음악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2016’에서 김영근(20)이 우승했다.

지난 8일 밤 생방송으로 펼쳐진 ‘슈퍼스타K 2016’ 결승전에서 훌륭한 음악으로 이지은과 박빙의 대결 끝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첫 번째 미션은 ‘스페셜 스테이지’였다. 김영근과 이지은은 각각 프로 뮤지션과 협업 무대를 꾸몄다. 김영근은 힙합 듀오 ‘다이내믹 듀오’ 개코와 함께 크러쉬의 ‘허그 미(Hug Me)’를 선곡했다. 이지은은 가수 유성은과 함께 들국화의 ‘하침이 밝아올 때까지’를 열창했다.

두 번째 미션은 ‘자유곡 미션’. 김영근은 ‘포지션의 이사랑’으로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뽐냈다. 반면 이지은은 박효신의 ‘숨’을 통해 가창력과 애절한 감성을 선보였다.

김영근과 이지은은 각각 심사위원 평균 95점, 94점을 받았다. 시청자 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김영근이 승리했다. 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부모님께서 믿어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린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김영근은 ‘슈퍼스타K 2016’ 방송 내내 ‘지리산 청년’으로 불렸다. 경남 함양의 지리산 인근 마을에서 자랐다. 상경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수 꿈을 키웠다.



/뉴스이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